

Toray, 고기능 수지 한국투자 확대

경상북도와 4억달러 투자 MOU 체결 ... 광확산 · 프리즘 보호필름 생산

일본 Toray가 구미4공단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4억달러를 투자기로 하고 투자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의근 경상북도 지사와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Toray 사장은 2월5일 경북 구미공단의 도레이새한 구미사업장에서 4억달러 투자협정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Toray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구미4공단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6만여평에 전기전자 소재 · 부품과 고기능 수지, 환경관련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Toray는 주로 휴대전화와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등에 사용되는 유연회로기판과 광확산 필름, 프리즘 보호필름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도레이 사카키바라 사장은 2003년 8월 경상북도를 방문해 “3년 동안 3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2010년까지 4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수정했다.

앞서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Toray에 임대료 전액 면제와 7년 동안 법인 · 소득세 면제, 이후 3년 동안 법인 · 소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시했었다.

한편, Toray는 세계 필름 시장점유율 1위로 국내에서는 도레이새한(구미)과 KTP(김천), 대한정밀화학(천안), 스테코(연기) 등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2/06>